

 보 도 자 료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			
보도 일시	2023. 1. 27.(금) 조간 2023. 1. 26.(목) 11:00	배포 일시	2023. 1. 26. (목) 06:00
담당 부서	해운물류국 해운정책과	책임자	과 장 허만옥 (044-200-5710)
		담당자	사무관 소현수 (044-200-5725)

해양수산부, 자동차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적극 지원 - 자동차 수출물류 업계 간담회 개최 및 지원방안 발표 -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조승환 장관 주재로 1월 27일(금) 오후 4시 한국해운협회에서 중견 자동차 업계 및 국적 자동차선사와 업계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는 최근 수출애로를 겪고 있는 르노코리아, 쌍용자동차와 함께 한국해양진흥공사(사장 김양수),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해운협회, 현대글로벌비스 그리고 유코카캐리어스에서 참석한다.

최근 극동발 자동차 수출 물량이 급증하면서 전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동차운반선은 대표적인 특수선종으로, 운반 화물이 제한적임에 따라 소수의 선사들이 제한된 수의 선박을 운용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동차 운송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 글로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자제함에 따라 전세계 자동차운반선 수는 팬데믹 이전 약 770척에서 현재 약 750척 수준으로 오히려 감소하였다.

그러나 업계 예상과는 반대로 중국을 중심으로 자동차 수출량이 급증하면서, '22년말 기준 자동차운반선 용선료 또한 코로나 팬데믹 이전인 '19년도 대비 3배 가량 증가하는 등 전세계적인 자동차운반선 공급 부족 문제가 심화되었다. 특히, 외국 선사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 르노코리아와 쌍용자동차 등에서 선복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자동차 수출물류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방안을 공유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개최하게 되었다. 해수부는 이 자리에서 글로벌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에 따른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한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그동안 수렴한 업계 애로를 바탕으로 이번 지원대책을 마련하였으며, 한국해양진흥공사 및 국적선사와 긴밀히 협력하며 지원대책을 이행할 계획이다.

우선 해수부는 시장 내 가용할 수 있는 자동차운반선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적선사와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차량을 자동차운반선 대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컨테이너를 통해 수출하는 등 대체 수출 옵션을 제공한다. 특히, 자동차운반선 부족 현상이 가장 극심한 극동아시아-유럽 항로의 물류 애로 해소를 위해 유럽 기항 선사를 중심으로 유럽항 컨테이너선의 일정 선복을 자동차 대체 수출에 전용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한 컨테이너를 통한 수출에 익숙하지 않은 자동차업계의 애로를 고려하여 자동차 컨테이너에 대한 항만 내 반입기간 연장을 추진, 자동차업계의 원활한 대체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대체수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수부는 자동차 수출애로 해소시까지 한국해운협회 및 한국해양진흥공사와 함께 비상대책반을 구축하여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 대응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자동차 선화주간 상생도 지원한다. 주기적인 선화주 협의회 운영을 통해 선복 상황을 점검하고, 국적선사의 여유 선복이 최대한 국내 업체에 배정될 수 있도록 해운업계와 협조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수출입 자동차화물의 연안운송 허용범위를 포항항까지 확대*하여 국적선사의 상생 노력을 지원한다. 업계에서는 야적장 포화 등 비상시 포항항으로 자동차를 긴급 전배 처리할 수 있게 되어, 화물 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 기존에는 인천항, 평택당진항, 군산항, 목포항, 광양항, 마산항, 부산항, 울산항만 허용

마지막으로, 해수부는 선박부족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한국해양진흥공사의 정책금융 등을 통해 국적선사의 자동차운반선 확보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하였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자동차운반선 도입 수요, 경제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해운업계와의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양진흥공사는 지분투자 또는 한국형 선주사업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며, 이렇게 마련된 선박의 경우 선박의 일부를 국내 중견 자동차 회사에 할당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국내 자동차 업계가 선박 부족과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과 협력하여 수출애로가 해소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기업들이 수출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선제적인 정책으로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참 고

관련 사진



평택항 자동차부두 수출 현장



울산항 자동차부두 수출 현장